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본지는 지난 3개월간 직장직능, 복지, 군부대, 어린이 및 청소년 분야에서부터 대중문화와 사이버 스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포교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맞춤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를 연재했다.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공담과 실패담을 모아본 이별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기자들이 발로 뛰었다. 지난 3개월간 기획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이 10월 6일 취재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포교비전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열린 생각 · 열정 · 시스템’ 이 포교 열쇠다

- 글 쓰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서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활성, 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회견

○... 이번 포교기획은 현장에 맞는 맞춤 포교의 틀을 제공하는데 관심이 모아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축적되어온 포교 노하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 포교현장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우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종단이 한해 포교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액수는 전체의 약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포교 예산이 불교의 미래가 없어도 불구하고 포교예산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중스타 포교에 활용하자

○... 비교적 포교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직장직능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다다른 직장직능 단계에서 이른바 조직화가 되지 않아 외해되거나 외국된 신형으로 변하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 대중문화뿐만이 아니지요. 일반 문화계가 다수의 대형 창작물을 쏟아내며 활기를 띠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교 문화계는 너무 조용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문화계는 자본과 직결되는 장르입니다. 불교계의 인색한 투자와 무대책이 오늘날 불교문화의 빈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 그래도 불교 복지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잘 되고 있는 복지관은 모두 불교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간 불교복지는 눈부시게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계층에게 꼭 들어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복지들을 통한 불교 포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교사 재교육·지원, 종단서 나서야

예산 늘리고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 분야별 불자 지식인 단체 구성을 ○... 현재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사이버 포교'는 대부분 인터넷 포교에만 얽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접근은 더 이상 새로운 포교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유비쿼터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이에 걸맞는 우수한 콘텐츠와 양질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종단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구감소와 취약한 접근성 때문에 포교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사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20년 후 스님도 신도도 없이 폐허가 된 사찰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 어린이·청소년 포교 역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해마다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어린이·청소년 불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각종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단체에 소속된 불자 수만 파악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청소년 불자의 수는 2003년 조계종 포교원 조사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조계종에 국한된 자료였지요.

○... 지식인 포교를 취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식인이 포교의 주체인가 대상인가'였습니다. 지식인이 다른 계층의 사람처럼 포교의 대상인 분별합니다. 동시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안할 때 포교의 주제로 나서야 할 책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불자 등을 제외하면 지식인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포교의 일선에 나서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식인들이 포교의 주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대학생과 외국인노동자 계층을 취

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돈이 안 되는 분야에는 여전히 불교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스님들과 포교사들이 사재를 털어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종단차원의 정책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 돈 안되는 분야엔 무관심

○...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지만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접근방법 또한 도출해 낼 수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취재과정에서 각자 생각한 맞춤포교 방안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지요.

○...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 단체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파악하면 그에 맞는 해답이 나오지요. 직장직능 역시 일한 운영으로 꾸준히 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대학과 연계해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 하나를 모은 단체들은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지요. 여기에서 직장직능 분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교기획 '맞춤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에 참여한 본지 기자들이 10월 6일 방담을 가졌다. 기자들은 '구체적 자료를 통한 과학적 접근, 전략적 포교이론의 정비 등 세대에 맞는 패러다임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 최근 몇 년간 산사음악회가 각 지역축제를 연계해 봄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산사로 불러 모았지요. 지금이야말로 산사음악회의 성공을 발판삼아 문화포교에 나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예술인들끼리 인프라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하겠지요. 후원기금을 마련할 창구를 개설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불교포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N세대 스타 중에서 불자가 누구인지를 꾸준히 파악하고 신형단체와 이들을 연계해서 불교로 끌어들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자 연예인과 종립학교가 팬클럽 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종단을 통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틈새 파고드는 블루오션 전략

○... 지역포교는 역시 현지화와 특성화 관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심사찰의 경우에도 인연 유희사의 사례처럼 현대인들이 원하는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 틈새를 파고드는 '블루오션' 전략은 사이버 포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인터넷 포교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사이버 포교의 또 한 축은 신기술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포교사를 남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이 포교사의 능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활동중인 포교사는 양질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에서 투입되기 전에는 일정 기간 현장지원봉사를 하며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분야 역시 종단 차원의 거시적인 지원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어린이·청소년 계층 포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매년 이들의 숫자를 파악해 포교지침을 세울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하나쯤 설립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저 역시 이번 기사를 쓰면서, 현재 불교복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00년 이후 간행되지 않은 복지총람을 다시 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계층은 불교의 미래 포교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관련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만 불광산사처법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한국어와 불교공부를 시킨후 다시 해외로 보내내는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교수포교사례 도입하자

○... 지식인 취재를 하면서 사회여론주도층에 불자가 적기 때문에 불교계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가 제안한 교수포교사제도는 장차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정착 종단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 마인드 없이는 포교가 요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 참석자=김주영·강지연·박봉영·남동수·조용수·강유신·여수영·박인숙·유철주·노병철·이은비·김강진 기자
- 정 리=이은비 기자

대원불교대학 마포 BBS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 이전

대원불교대학이 2006학년도부터 마포 BBS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개교를 합니다. 그동안 대원불교대학을 아껴주신 동문,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6학년도부터 새로이 불교상담학과를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서울·부산)

불교인문과정

- 주, 야간 50명(주 1회 출석, 6개월 과정)

대학 과정

- 불교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 불교상담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대학원 과정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응시 가능)

- 불교학과 : 야간 30명(주 2회 출석, 오후 7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년 12월 12일 ~ 2월 20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과정만 해당)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대원불교대학의 전 과정은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익은 교학과 (서울 02-754-1613, 부산 051-583-7811~2)로 해 주십시오.

30년 전통 대원불교대학의 자랑

- 최고의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 저렴한 교육비와 최상의 학사행정 서비스
- 부부 입학 시 1인 50%, 학업우수자 50%, 불교성직자 30% 장학혜택
- 재학생 전원 불교사이버대학 수업료 면제(동영상 강의 시청)
- 졸업 후 소정의 고시를 거쳐 법사 및 불교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

■ 학사이전 기념 동문·재학생 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 5시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

